



인생의 두려움

(마 10:2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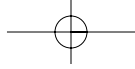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인생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벼슬 가진 사람을 특히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본문에 보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육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과 영을 함께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인생의 두려움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두려워 부르짖은 소리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한 결과로 나타난 심리적 현상입니다. 왜 인생은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 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찌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 엄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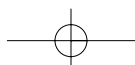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죄로 인하여 인간 세계에는 두려움이 들어 왔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두려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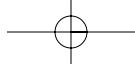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인생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병이 나서 죽을까보아 두려워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을까 보아 두려워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는 것도 잘 살기 위한 꿈이요, 학교를 지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남과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음을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살기 위하여 인생은 나날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1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수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의욕에서 일생에 종노릇하는 것이 인생이올시다.

성경이 인생의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1. 두려워하는 일로 인하여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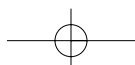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인생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더 음미해 볼 것 같으면 영국의 어느 무신론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무신론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망망한 대해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나무 잎처럼 흔들리고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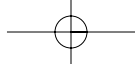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인생은 그가 견장할 때 또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왔을 때 별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없이 강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견딜 수 없을 때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 세계에도 있습니다. 짐승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손 번식을 위해서 도망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짐승은 본능적이요 사람은 의식적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는 두려움이 올 때 어머니를 찾습니다. 왜 어머니를 찾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낳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그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두려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으로 두려움은 끝납니다. 인생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옳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





에게도 영이 있으니 사람의 이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온전한 영이 옳습니다.

나의 육신은 육신을 가지신 나의 부모님이 낳습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부모에게서 났다면 영은 어디서 낳습니까? 나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낳아진 것이 옳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영에서 나온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에게 두려움이 올 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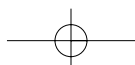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현대인들은 특히 불안하다느니 고독하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불안하고 왜 고독한지 그 이유를 묻노라면 이유도 없이 어쩐지 불안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불안이나 초조, 고독은 영원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즉 이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이요 초조요 고독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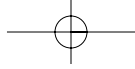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그러므로 인생의 불안, 초조, 고독은 죽음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을 찾으므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2. 인생의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면하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면할 수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두려움이 올 때 두렵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끝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야지 하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이 다른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해 볼 수 없느냐? 인생은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두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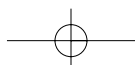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는 극도로 발달하여 지금은 인공위성을 연구하여 달나라까지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발명과 연구를 거듭하여 성공해온 인생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까? 두려움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의 세계가 될 수 없을까? 두려움이 변하여 희망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인생의 공포가 변하여 즐거움의 세계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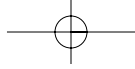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그 길이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분명코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잡혀야 합니다. 잡혀야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느 농촌에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실수하여 어느 날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매장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살인사건을 알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는 세밀하여 점점 범위가 좁혀 갔습니다. 범인이 그 동리 안에 있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수사는 점점 축소되어 갔습니다. 범인인 부자 농부의 마음이 어떠해졌겠습니까? 형사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에 차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잡혀야 할 범인이 잡혀지지 않았을 때 그 범인의 두려움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범인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혔다는 것은 망한다는 예고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잡혀야지. 잡히면 망합니다. 인생은 두려움을 면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면할 길을 구합니다. 인생에게 두려움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멸망하는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을 가진 인생의 그 영이 범죄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멸망되고 만다는 예고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영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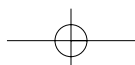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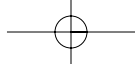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되어질 때는 면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멸망이라 했는데 이 멸망이 예고된 것을 볼 때 면할 수 있는 길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면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영을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려움의 은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동시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란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이 멸망의 장소를 인생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성경에 지옥이 있다는 예언은 안 이루어지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안심해서 될 문제입니까? 자기의 경험, 지식, 철학, 범위가지고 지옥이 없다느니 성경에 어느 부분은 진실하고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로 이 엄연한 사실을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어리석은 것은 인생뿐입니다. 어찌도 그렇게 어리석고 무게가 없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생의 지식, 경험 철학에 아랑곳없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코 성경 예언은 이루어질 것만은 사실입니다. 땅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니 꽃은 시들어지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벧전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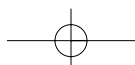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결론)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죄악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을 인생의 힘으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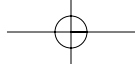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이 없다고 안심하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에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생을 마친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 못에 들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고 안심할 문제입니까?

바라건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수난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사람에게 열 번 잘못된 일이 있다면 혹 용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또 열 번의 잘못이 있으면 의심하겠지요. 다음 또 열 번 잘못 했다면 그때는 피해 가고 말지, 바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 했을 때 『오 주님이여 참 잘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백번 뿐이겠습니까? 천번 만번도 아니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 감격하고 고마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





습니까?

나를 이해하여 주고 나를 위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니 나에게 그리스도 밖에 또 필요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무엇이라고 말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자랑 할 것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 하지, 그러나 나를 참 이해하여 주시고 나를 참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이는 나의 주님 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아니라 진실로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인생의 두려움을 없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인생의 영원한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젊을 때야 철학을 말하지. 지식을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참 절박한 죽음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 경험, 지식, 철학, 물질,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평화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970.03.08

